

여왕과 여성, 혼인과 가계 계승

2017. 10. 10.
하일식 *

1. 여왕이 출현한 배경
2. 혼인 풍속 관련 기록
3. 남녀의 사귀와 혼인의 절차
4. 상류층의 가계 계승

1. 여왕이 출현한 배경

삼국 가운데 신라에만 3명의 여왕이 있었다. 드라마 영향도 있는 듯, 선덕왕(德曼)을 걸출한 능력자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왕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골품제를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덕만이 왕이 된 것은 “성골 남자가 없어졌기(聖骨男盡)” 때문이었다. 그러면 성골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연구자는 성골 비실재설을 내기도 했고, 모계로 인한 강등을 상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우리 학계는 ‘불교식 왕명시대’를 거치며 높아진 왕족의식을 바탕으로 진평왕 직계 혈연이 성골을 표방했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법흥왕 : 무즉지(另卽智) → 법흥(法興, 佛法을 흥하게 하다) →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 535)’

진흥왕 : 심맥부(深麥夫) → 진흥(眞興, 불교를 진정으로 일으키다).

진흥왕의 아들은 동륜(銅輪), 사륜(舍輪)

불교의 전륜성왕(轉輪聖王)은 세상을 정법(正法)으로 다스리는데 금륜(金輪), 은륜(銀輪), 동륜(銅輪), 철륜(鐵輪)성왕이 있다. 인도 아소카왕이 불교를 받들며 사방을 정복하여 현실에 나타난 전륜성왕으로 간주되었는데, 진흥왕도 사방으로 확대한 영토를 직접 돌아보며 순수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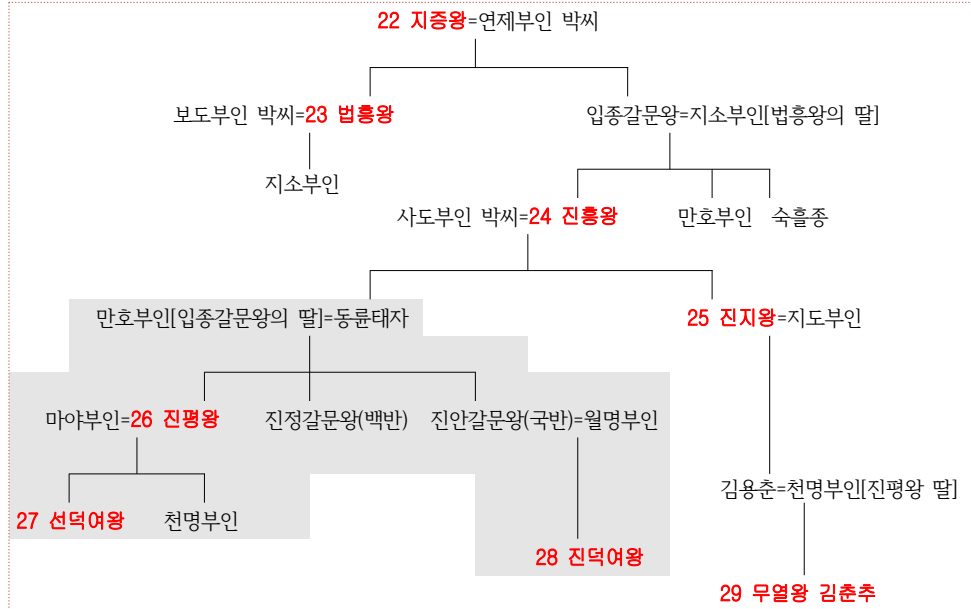
진흥왕의 맏아들 동륜태자가 일찍 죽고, 둘째 사륜이 25대 진지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구실로 4년만에 쫓겨났다. 26대 진평왕은 동륜태자의 아들로 이때 불교식 왕명시대는 절정에 이르렀다.

진평왕 - 백정(白淨) : 석가의 아버지, 왕비 - 마야부인(摩耶夫人) : 석가의 어머니.

*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신라 집권관료제 연구』(2006, 혜안),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공저, 2007, 혜안), 『한국고대사 산책』(공저, 2017, 역사비평) 외 고대사 논문.

진평왕 동생 백반(白飯), 국반(國飯) : 석가의 숙부들 이름 → 왕실 가족 신성화.

[표] 6~7세기 신라 왕위 계승도



진평왕은 아들이 없이 덕만(德曼)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덕만은 불교식 이름이다. 27대 선덕왕으로서,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에서 즉위한 듯하다. 즉위 이후 권위를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3가지 선견지명 이야기, 황룡사 9층탑 건립 등). 그러나 여왕통치에 반발한 비담·염종이 반란을 일으켰고, 김유신의 주도로 난이 진압될 무렵 여왕은 사망했다. 28대 진덕왕의 이름 승만(勝曼)도 불경에 나오는 인도 아유자국의 왕비 이름이다. 성골은 이렇게 진평왕대에 절정에 달한 왕족의식을 바탕으로 표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직계 후손이 끊어져 진골만 남은 까닭에 김춘추가 즉위했다.

3번째 여왕인 51대 진성왕이 즉위한 배경은 조금 달랐다.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심한 왕위 쟁탈전을 겪은 뒤, 진성왕의 아버지 경문왕 무렵부터 강한 권력을 확립했다. 그리하여 그 아들 헌강왕, 정강왕이 차례로 즉위한 뒤에 마지막으로 딸이 즉위했다(진성왕). 정강왕은 신하들에게 “내 누이동생은 명민하고 골격이 장부와 같으니, 마땅히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 일을 본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유언했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현안왕이 “비록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일에 가까운 것이니 본받을 수 없다”며 사위 응림(경문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과 상반된다. 결국 이런 말들은 적당한 핑계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고려였다. 후대의 김부식은 선덕왕 분기 말미에 『시경』의 ‘암탉이 울면...’이라는 구절을 들먹이며 “신라는 여자를 왕위에 올렸으니 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여왕에 대한 극단적 부정론이다.

2. 혼인 풍속 관련 기록

여성의 지위를 짐작할 만한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혼인인데, 한국 고대의 혼인 풍속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것들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의 혼인 풍속1 - 국내성 시기

그 풍속에는 혼인할 때 말로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 큰 집의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서옥(婿屋)이라 한다. 날이 저물 무렵에 사위가 여자 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대고 꿇어앉아 절하며 여자와 함께 잘 수 있기를 청한다. 두세 번 이렇게 하면 여자의 부모가 작은 집에 들어와 잘 것을 허락하는데

곁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아이를 낳아서 크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고구려의 혼인 풍속2 - 평양 천도 후

대체로 재물과 폐백이 없이 혼례를 치른다. 만약 재물을 받으면 계집종으로 팔았다고 하며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풍속이 있다. (『주서(周書)』 고구려)

동옥저의 혼인 풍속

『위략(魏略)』에 말하길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면 서로 약속하고, 신랑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친정에서 돈(錢)을 요구하는데, 돈 지불을 마치면 다시 신랑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삼국지』 동이전 동옥저)

(고구려는) 동옥저의 미인을 보내게 하여 종이나 첩으로 삼았으니, 그들(동옥저 사람)을 奴僕처럼 대우하였다. (『삼국지』 동이전 동옥저)

혼인 과정에서 폐백이 오가는 것을 매매혼의 혼적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남성이나 여성의 노동력과 그 대가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록에 보이는 양상이 당시 사회에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구려의 국내성 시절의 『삼국지』 기록은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평양 천도 이후의 『주서』 기록은 중하급 계층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천도한 뒤에 풍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이런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동옥저 ‘민며느리 풍속’도 어린 여성의 노동력과 그 대가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혼인 풍속에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해둔다. 강의 후반부에 상류층의 혼인은 남녀간 사귄 것과 다른 차원에서, 가계 계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이다.

3. 남녀의 사귄과 혼인의 절차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말은 조선 후기 이후에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위기였다. 고대사회는 이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사례

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만 꼽으면 다음과 같다.

선화공주와 서동

공주가 귀양가는 곳에 도착할 무렵 서동이 도중에 나타나서 절하고 모시고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그가) 비록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상대하며 믿고 좋아하였다. 이리하여 수행하면서 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서는 동요가 영험(靈驗)이 있었음을 믿게 되었다. (『삼국유사』 무왕)

김서현과 만명부인의 혼인

일찍이 서현이 갈문왕 입종의 아들인 숙흥종(肅訖宗)의 딸 만명을 길에서 보고 기뻐하며 눈이 맞아 중매를 기다리지 않고 야합하였다. 서현이 만노군(萬弩郡, 충북 진천) 태수가 되어 함께 가려 하자 숙흥종이 비로소 딸이 서현과 야합했음을 알고서 미워하여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다. 갑자기 문에 벼락이 쳐서 지키던 자가 놀라 어지럽자, 만명이 구멍으로 빠져나와 서현을 따라 끝내 만노군으로 갔다. (『삼국사기』 김유신)

김현과 호랑이 처녀 이야기

신라 풍속에 매년 봄 2월 8일에서 15일까지 왕경의 사녀(士女)들이 다투어 흥륜사의 전각과 탑 주위를 도는 복회(福會)가 있었다. 원성왕대에 김현이라는 청년이 있어 늦은 밤까지 홀로 돌며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며 따라 돌다가 감정이 서로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가 끝나자 구석진 곳으로 이끌어 정을 통하였다. (『삼국유사』 김현감호)

고대사회의 남녀 사귀는 후대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웠다. 남녀가 호감을 느끼면 쉽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양상은 귀족이든 서민이든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그 관계가 혼인으로까지 연결되었을까?” 묻는다면 “계층에 따라 달랐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즉 서민은 남녀의 사귀 → (부모의 인지, 승낙) → 동거 → 혼인,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상류 귀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김서현과 만명부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의 인지, 승낙’이라는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상류층의 혼인이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혼인은 가족 구성의 계기이며, 세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계기인 만큼, 가문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앞으로 태어날 자식이 조상 제사는 물론 부(富)와 신분, 정치적 지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

주몽신화의 유희부인은 “중매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해서 하백에게 내쫓김을 당했다. 그리고 선화공주도 야합했다는 이유로 궁궐을 쫓겨났다. 김유신은 문희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짐짓 불태워 죽이려고도 했다. 부모의 승인, 중매 등이 중요한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서옥(婿屋) 풍습에서 “말로 정해지면”이라는 구절은 부모의 승인과 중매 등을 뜻할 것이다.

신라의 귀족 여성은 상속의 주체이기도 했다. 후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

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오해하면 곤란한 점이 있다. 위의 사례처럼 고대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였다는 것이다. 가부장은 딸을 내쫓기도 했고, 딸의 혼인을 가로막기도 했으며, 심지어 오빠가 앞장서서 누이동생을 불태워 죽이려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었다. 가부장의 권한을 장남이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4. 상류층의 가계 계승

그러면 물려받을 재산과 신분, 정치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의 혼인 양상은 어떠했을 까? 내가 이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하며 여러 기록을 검토한 것은 몇 가지 의문 때문이다.

첫째는 백제 무령왕의 경우이다. 무령왕은 41세에 즉위하여 62세에 사망했는데,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왕비의 어금니는 30대 여성의 것이었다. 후처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너무 심한 나이차이다. 둘째는 김유신과 지소부인이다. 그는 61세에 김춘추의 딸 지소부인과 혼인했는데, 이것이 초혼일까, 지소부인은 문희가 낳은 딸일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해본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서기』에 기록된 왜국의 계체천황(繼體天皇) 이야기가 참고된다. 그는 무열천황(武烈天皇)이 자식 없이 죽자 57세 되던 해에 추대를 받아 즉위했다(506). 그런데 그 직후에 신하들이 젊은 황후를 맞이할 것을 건의하자 바로 승낙했다. 수십 년 함께 살던 부인은 황후가 되지 못했다. 다만, 새 황후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너무 어려서, 이전 부인이 낳은 장성한 두 아들이 차례로 즉위한 뒤에 세 번째로 천황(欽明)이 되었다.

이렇게 ‘정식 배우자’ 즉 그 자손이 상속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반드시 혼인의 선후관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 고대사회에서도 최상류층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김유신의 경우가 그렇다. 61세에 김춘추의 딸과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다른 여인과 ‘정식’으로 혼인하였겠지만, 김춘추의 딸이 낳은 자손만 인정받았다. 이전의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기록에 잘 보이지 않아, 아마 서자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추의 경우에도 문희가 낳은 자식 이외에는 서자였다.

두 가문이 합의하여 ‘정식 혼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다른 상황이 닥치면, 새 배우자가 정식 혼인 관계로 인정받고 이전의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서자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보면, 기록에 전하는 다음 이야기들이 이해된다.

강수가 일찍이 부곡의 대장장이 집 딸과 야합하여 자못 돈독하였다. 나이 20세가 되자 부모가 읍내의 여성 중에 용모와 행실이 좋은 자를 중매하여 처로 삼으려고 하였다. 강수는 두 번 장가들 수 없다고 하여 사양하였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너는 이 시대에 이름이 나서 온 나라가 다 안다. 그런데 미천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다면 또한 수치스럽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강수전)

거득공이 재상이 되기 전, 거사 차림으로 무진주(광주)를 돌아볼 때, 현지의 안길(安吉)이란 자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차리고 자기 집에 모셨다. 그날 밤 3차

를 불러 “오늘 밤에 거사를 모시고 자는 사람과 종신 해로(偕老)하겠다”고 하였다. 두 처는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나그네와 함께 잔단 말이요”라고 하였다. 그 중의 한 처가 말하기를, “공이 만약 종신토록 같이 살기를 허락한다면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쫓았다. (『삼국유사』 문무왕법민)

혼인의 순서와 상관없이 ‘정식 배우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고 있던 사람이 강수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강수는 출세한 뒤에도 의리를 지켰다. 안길 이야기 속의 ‘해로’란 표현은 정식 배우자, 즉 출생한 자녀를 가문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권자로 인정하는 관계를 뜻할 것이다. 그는 3여인과 동거하면서도 아직 누구를 ‘정식 배우자’로 삼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특히 정식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남성인 안길이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이렇게 고대사회의 상류층의 경우에는 두 가문의 양해 하에 혼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더 유력한 상대가 등장하면 ‘정식 배우자’의 지위를 바꾸기도 하였다. ‘정식 배우자’란, 그에게 태어난 자식이 재산과 지위, 신분을 물려받고 제사권을 갖는 ‘상속자’로 지명된다는 뜻이다.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에 비해 높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자연스레 통용되던 때가 고대사회였다.

[참고문헌]

- 한국역사연구회, 2005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7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